

# “교통대란, 저출산, 고령화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

김병태 남구의회 의장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2017년, 올 한해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의회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구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민감동,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이 위임한 역할에 충실하고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때로는 협치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4일간 열리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관련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법령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는 단언컨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는 있는지 꼼꼼하게 묻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성실한 수감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구민안전에 관심을 대다 초점을 두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동반자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소명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6년이 지난지만 법적·제도적 한계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여전히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달 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4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작성한 ‘자치분권 여수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 지방입법의 자율성

과 책임을 가지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자원 확보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화 구상을 밝히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지방의회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올 한해 우리 남구의회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 ■남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 출범

지난 5월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각 분야의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남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부산시 구·군의회 최초로 출범시켰습니다.

### ■고문변호사 위촉

입법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부산고등법원장을 지낸 명망 높은 판사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 두분을 고문변호사로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 ■의원과 구민과의 소통공간 마련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와 의원과 구민이 자유롭게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마련을 위해 남구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개별 의원실과 회의실을 확보하였습니다.

### ■의정홍보 영상시스템 구축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소상히 알리고 의정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등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홍보 영상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남구의회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구정의 단면 현안과 관련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교통소통 대책

먼저, 교통소통 대책 마련입니다. 남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공사로 인해 관내 간선도로는 이미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교통대란이 예상을 넘어 확실시 되고 있는데도 교통소통 대책 마련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

다음,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입니다. 2016년 12월 현재, 남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6.4%를 차지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을 0.98명으로 부산시 평균인 1.10명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마지막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의 문제는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권자의 의지와 운영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사권자는 인사위원회에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시로 바뀌는 인사 방침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직의 안정에 반하여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보직보다는 어느 위치에서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산시 수준의 파급한 발탁을 진도 필요합니다.

특히, 부산시가 우리구와 벌이는 인사행태를 보면 실망을 넘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도 경과되지 않은 간부 공무원들을 우리 구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하고 시로 전보발령을 내는 인사는 구시대적 횡포에 가깝습니다. 또한, 인사권이 부산시에 있다는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하거나 소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전보통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저출산·고령화대책,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구 의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6기 임기는 불과 7개월여 남짓, 올 한해도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 다. 실내빙상장과 남구복합청사 등 올해 착공했거나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진한 사업은 더 나은중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기말 연말연시를 맞아 행정공백이나 누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길고 매우 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홀로계신 어르신과 위기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서도 나눔과 배려를 통해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데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상당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퇴소하여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상담창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등과 연계한 다양한 자립체제 훈련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대학진학 보다는 취업이 불가피한 아이들이 보다 많은 기회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자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와 경제적 궁핍에 의한 사회문제 해소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센터가 설치되면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 진로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화된 남구형 사회적기업의 양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일환으로 보호종료자에 대한 맞춤형 사회적 기업의 양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할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격언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받고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낸 보호종료아동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정착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시기** : 남구의회 회기 중(정례회, 임시회)  
○**방청장소** : 본회의장  
○**방청대상** :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남구의회(의장 김병태)는 2017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0일부터 열고 있다. 내달 1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11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8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처리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민소 의원은 ‘도 중요 아동에게 희망을’, 김광명 의원은 ‘아름답단지역 용호동 트렐리스 대책을’, 박재범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이 계속되었다.

또한 회기 중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이 계속되었다.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수정가결)

－2017년도 일반 변동액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 정리를 위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원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과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사항이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 달성 조문 폐지 및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

을 얻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가결)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해 2018년도 설치 예정인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가결)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가결)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된 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인 「가족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부합되도록 제명 및 가족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위임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가결)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개선 과제대상으로 통보된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의 조례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수사항 개정을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6.7.1), 종대본 운영규정 제정(‘16.4.25),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17.1.8)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가결)

## 아름답단지역 용호로 트렐리스 대책을



김 광 명 의원  
(용호2·3·4)

저는 남부하수처리장 앞에서 백운로 방향으로 1.4km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그린 트렐리스(Trellis)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1년 4월 공공디자인 심의, 도시녹화기술 심의와 용호동 주민설명회를 거쳐 그해 7월 부산광역시 녹지정책과 푸른도시개발사업소가 하부 종일 길이 마칠 예정에 의하면 사회문제와 주변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용호동의 도로 가로수를 대체할 화분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박 재 범 의원  
(용당, 갈만·2, 우암)

저는 남구 구민을 위해 복지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이틀 해결하기 위한 구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확대 요구에 따라,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140조원을 넘어섰고, 남구의 복지예산도 1,9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저임금·고강도 업무에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 구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활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가결)

－상위법령인 「갑질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가결)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가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를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가결)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하고, 주민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간접흡연” 용어를 삽입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 한철 장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원가결)

－‘16.7.13. 자 「부산광역시 한철장례에 관한 조례」 협력체계 구축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연6동 청사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기부채납))(의원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스는 기대와는 달리 아름답지못 변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또 전화민원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6년 동안 민원인들은 달랐지만 똑같은 내용의 전화 민원이었습니다. 6년 전 설치된 트렐리스는 원래 통행이 적고 보도가 좁은 곳에는 설치가 용이하나 용호동은 정 반대로 통행인이 많고 보도가 좁아 처음부터 용호로와는 잘 맞지 않는 시설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용호로의 트렐리스는 주민들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고, 특히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쓰고는 교차통행이 힘들고, 지나가다가 옷이 시설물에 걸려 찢어지는 등 주민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투자해서 만든 트렐리스가 용호동 주민들에게 과연, 도움되는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관리 인력을 더 충원한다고 해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주민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내용 중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트렐리스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남구청에서 좀 더 수렴하신 후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개선 지원 위원회’ 기능을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청은 올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230만원, 사회복지사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구청장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처우개선비를 지금 받는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사각층을 소외하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남구에는 230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 이들 외에도 장애인 복지관 언어치료사 등과 복지업무 외에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이들도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조사를 전문가관에 위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생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사회 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